

본지(本誌)의 주(主)인 1992. 3. 1.  
 주(主)인 : 보사부(保健部) 권의

본지(本誌)의 주(主)인 1992. 3. 1.  
 주(主)인 : 보사부(保健部) 권의

**마케팅부 권의**

1.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어 실시되었습니다.  
 2. 우리 전자의료기기를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자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급장벽을 허구 제로화해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생산업체의  
 4대 항목)

**세계은행 (IBRD) 차관 도입사업에  
 국산개발 전자의료장비 우선 구매 권의**

본지(本誌)의 주(主)인 1992. 3. 1.  
 주(主)인 : 보사부(保健部) 권의

1992년 3월 2일 보사부·상공부 권의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 金峻經 (두산산업 대표)는 지난 3월 3일 세계은행 (IBRD) 차관으로 구입할 의료기기를 선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사부가 국산 의료기기를 외면한채 외국 의료기기 일색의 병원측 구입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전자의료기기 업계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현재 보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매계획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자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및 첨단 의료기기 생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전자의료기기 업계와 날로 취약해져 가고 있는 제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부 정책이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간주하고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에 대해서 만큼은 국산 전자의료기기를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주무 부처인 보사부와 유관 부처인 상공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1. 건의배경**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우리 여건에 적합한 수출 유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수준이 아직 유아 단계에 있어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업계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첨단 전자의료기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능 및 신뢰성을 중요시 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48개국에 이미 상당액을 수출하고 <표-1, 표-2> 있는 바, 수요기관들이 국산

<표-1> 전자의료기기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구 분	'90(실적)		'91(추정)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미 국	3,963	20	5,247	25
일 본	6,790	34	2,763	13
유 럽	2,025	10	3,795	18
기 타	7,119	36	9,188	44
합 계	19,897	100	20,993	100

자료 : 무역통계

<표-2>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회원사 통계) (단위 : 천불)

구 분	'90	'91	'92 (계획)	증감률 (%)	
				'91	'92
생 산	19,497	40,037	65,908	105	64.6
수 출	1,694	13,636	27,960	704	105
(생산대수출비율)	(9)	(34)	(42)		
내 수	17,803	26,402	47,948	48	44

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기능과 신뢰성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선의 상당부분이 일본으로 되어있는 지금의 보사부 구매계획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산 품목에서만도 3,135만불의 무역수지 역조요인을 안게 되어 의도적으로 의료기기분야 무역수지(표3) 및 대일무역수지 나아가 국민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전체무역수지 적자를 한층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

〈표-3〉 의료기기의 무역수지

(단위 : 천불)

구분	'90(실적)	'91(추정)	증감률(%)
수출	73,040	77,010	5.4
수입	259,790	387,191	30.9
수지	-222,750	-310,181	39.3

자료 : 무역통계

쟁력 강화 정책도 그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선진국(일본)들처럼 국산 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입체적 지원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을지라도 모처럼 마련된 수요흡수의 기회(BRD차관)마저도 국산 개발된 제품을 외면하고 수입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제조업은 개발, 투자, 근로의욕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요기관이 국산 구매기피를 위해서 과도한 규격을 설정하여 비용과다 지출의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고압살균 소독기의 경우 국내생산되는 용량은 782ℓ인데 이 용량은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용량(782ℓ)의 기기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국내 생산치 않는 용량(850ℓ)의 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의학과 공학(기계, 전자)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분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체장애자와 같이 여건이 어려운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적으나 연구개발 잠재 우수인력이 풍부한 경제환경에 매우 적합한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고, 선진 외국의 경우 (일본)도 사회가 고령화되고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전자의료기기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장애자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의료복지기기 기술위탁연구개발제도(지원금액 : 200억원), 전자의료기기 보급확대를 위한 리스제도(지원금액 : 4,000억원(91))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2. 건의사항

첫째, 정부는 수요자의 구매계획(품명, 규격, 수량 등)을 정부구매 예시제도에 의거 이를 미리 국내 제조업계에 알려 국산개발을 촉진토록 해주기를 바라며 둘째, 의료장비선정 심사위원회는 수요자들이 구매코자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국내 제조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산가부를 판정해 주기 바라며, 세째, 동 위원회에서는 수요자들이 구매코자하는 품목의 규격이 그 수요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국산제품의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수입사유 등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등도 아울러 검토하여 국산구매를 기피하는 일부 수요자들의 의식을 바로잡아 주고, 네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전자의료기기는 중소전문기업형의 첨단기술산업이라는 측면과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복지증진에 직접 연관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촉진과 보급의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유아단계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차관사업에 국산개발 장비를 우선 구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